

즉시 보도용

2025년 4월 11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LA 인사부 총괄 매니저 임명 발표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 말라이카 빌럽스(Malaika Billups)를 LA시 인사국(Department of Personnel)의 신임 국장(General Manager)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 행정관리실(Office of the City Administrative Officer)의 부국장으로 재직 중인 빌럽스 지명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아온 인사 전문가로, 인사국을 이끌며 시 공무원 조직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시의 법적 책임 비용을 줄이며, 인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캐런 배스 시장은 “말라이카 빌럽스는 시청의 현 체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추진력과 혁신성을 갖춘 지도자이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직원들을 지원하고 높은 법적 책임 비용을 해결하며 시의 운영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리더가 절실하다.”며 “그녀의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은 LA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빌럽스 지명자는 “배스 시장의 지명을 받아 인사국의 국장으로 일하게 돼 영광이다. 시의 인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고의 인재를 채용해 LA 시민들이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빌럽스 지명자는 그레이스 리우 임시 국장의 뒤를 이어 인사국을 이끌게 된다. 리우 국장은 재직 기간 동안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을 위한 재난복구센터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재난근무자 프로그램(Disaster Service Worker Program)을 가동했고, 시의 신규 인사-급여 시스템을 도입하며 각 부서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배스 시장은 “전국적인 인재 공개 모집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국 임시 국장직을 맡아준 그레이스 리우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인사국 부국장으로서 계속 근무하게 돼 매우 든든하다.”고 전했다.

시장실은 현재 인사 절차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인재를 채용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이 과정에서 유능한 지원자들이 인근 도시의 제안을 받고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으며, 말라이카 빌립스의 임명은 인사 절차를 혁신하고 간소화하며 현대화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다.

빌립스 지명자는 2017년부터 시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예산 수립, 노사 관계, 시 부서의 재정 관리 개선을 포함한 광범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관리실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전에는 인사국의 최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 책임자(Chie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Officer)로 근무하며, 시 전반의 직장 내 형평성 정책과 조직 문화 및 기후 설문을 주도했다.

빌립스는 시에서의 첫 경력을 시 법무국 노동관계부서(Deputy City Attorney in the Labor Relations Division)에서 시작했다. 이곳에서 시의 직장 형평성 정책을 수립하고, 10개 이상의 부서에 노동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시의 고용 정책이 주법을 준수하도록 이끌었다. 그녀의 부서 간 경험은 시 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시의 법적 책임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로올라 로스쿨 졸업 후, 빌립스는 로스앤젤레스 내의 여러 저명한 로펌에서 활동했고, 교육자로서의 첫 사회생활은 LA통합교육구에서 4학년 교사로 시작했다. 빌립스 지명자의 임명안은 4월 11일 금요일, 시의회 인사 및 채용 위원회를 거쳐 전체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